



지난 23일 전북자치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제17기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 김관영 도지사가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문화재위원회 활동 본격 시동

김관영 도지사, 위원들에게 위촉장 전달... 문화재 조사·지정심의 등 역할 수행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3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20여명의 문화재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새로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김관영 도지사가 참석해 문화재위원회에 위촉장을 직접 전달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위원회로, 지난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2월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새로 구성하게 됐다.

30명으로 구성된 제1기 위원들의 임기는 2024년 2월 1일부터 앞으로 2026년 1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앞으로 도내 문화재 보존·관리 등을 위한 다방면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오는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유형과 무형문화재가 '문화재'란 명칭에서 각각 문화유산과 무형유산으로 정의돼 '국가유산'으로 보호받게 돼 계승·발전 등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미래지향적 국가정책방향에 맞춰 2024년도 유형문화재 지정계획을 수립해 신규 문화재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사적·비문화재 조사 지원사업, 학술지원사업 추진 등 문화유산 국가 지정 승격 확대(5건)를 위해 시·군과 협력할 예정이다.

이날 문화재위원회는 위촉식에 이어 분과회의가 진행돼 새롭게 출범한 문화재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또 회의를 통해 첫 위원장으로 전(前)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원장인 전경목(만 68세)씨가 선출됐다.

문화재위원회 제1분과(건조물·고고유적·전통가옥) 회의에서는 현상변경 및 지정(검토) 심의 등 7건을 심의했으며, 문화재위원회 제2분과(고문서·회화·조각 등) 회의에서는 지정검토심의 2건을 심의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도내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해 민족문화를 계승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문화유산과 무형유산의 발굴 및 활용방안을 위해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위원들의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자치도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북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취업담당자 직무연수 개최

도내 9개 센터 종사자 100여명 참석... 센터별 특화사업 사례 공유·의견 나침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원장 정정희)는 지난 23일 경력단절여성 취업담당자 직무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일센터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도내 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9개 새일센터별 특화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추진과정 문제점과 개선안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일자리 담당자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날 연수에서 공유된 사업운영 우수사례는 각 새일센터 맞춤형 적용으로 실질적인 전북지역 경력단절여성 취업률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담당하고 있는 취업담당자들의 사기진작으로 연극 관람시간도 마련했다.

한편 도내 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

절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해 작년 한 해 1만2,635명의 취업을 연계, 이중 9,034명(71.4%)이 취업에 성공했다.

정정희 원장은 "이번 직무연수 행사를 통해 새일센터 직원들의 자존감 향상과, 새일센터 간 소통이 더욱 공고해질지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새일센터가 동반 성장하며, 경력단절 여성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팀(063-254-3718)로 문의하면 된다.



관소리마당 '소리 판' 완창무대

국립민속국악원, 소리꾼 조희정 동초제 춘향가 내달 9일 진행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3월 9일 오후 3시, 2024 관소리마당 '소리 판' 공연을 통해 소리꾼 조희정의 동초제 춘향가 완창무대를 6시간 동안 선보인다.

동초제 춘향가는 명창 동초 김연수 선생이 1930년대 초 여러 관소리 명창들의 소리 중 좋은 점만을 골라 새로운 소리를 만들고 자신의 호를 따서 '동초제'라 명명했다.

3월부터 국립민속국악원 예음헌에서 총 5회 열리는 관소리 마당 '소리 판' 완창무대는 관소리의 계승·보존과 대중화를 위해 시작한 대표 기획공연으로, 소리꾼 조희정은 제39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명창부 장원(대통령상)을 한 바 있다.

조희정 명창은 조소녀, 이일주, 김일구에 게 사사하였으며, 섬세하고 깊이 있는 소리는 많은 관소리 애호가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번 공연 고수에는 조용수 명고와 국립



국악원 민속악단 지도위원 조용복 명고가 함께 하며, 공연은 전화(063-620-2329) 또는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상담원과 대화)과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대학교 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사)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개의 국고지원 사업에 선정됐다.(사진은 전주대 박물관 전시 개막 모습)

전문성 갖춘 학예 인력 양성 '탄력'

전주대 박물관, 문체부 인력 지원사업 2개 부문 선정

전주대학교 박물관(관장 이상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사)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개의 국고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박물관 전문인력의 업무능력 강화와 전문성을 위한 '2024년 사업 및 사립대학 박물관 전문인력(학예, 교육) 지원사업'과 예비 학예인력 양성을 위한 '2024년 사업 및 사립대학 박물관 예비 학예인력 지원사업'이다.

박물관의 운영 여건, 박물관 현황, 박물관 실적 및 평가, 등록 요건 유지, 사업계획, 인력

활용 계획 등에서 높게 평가 받았다.

앞서 전주대 박물관은 2개의 해당 사업을 활용해 특별전, 온라인콘텐츠 제작,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박원수 학예연구실장은 "4년 연속 전문(학예, 교육)인력 우수 박물관으로, 전문성을 갖춘 학예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박물관은 지원받은 전문인력(학예, 교육, 예비학예 부문) 3명을 3월부터 배치해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경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 꾸민 곳이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